

2015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실사일: 2015년 4 월 30 일 (2)교시

과목	국어	대상	2학년	출제교사	계	부장	교감	교장
				김세론 (인)				
				안주연 (인)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의 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각 물음에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문항수는 총 (24) 문항입니다.
-선다형 (16) 문항, 서술형 (8) 문항
- 과목코드는 (01)입니다.

1. '시적 화자'에 대한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허구적 대리인이므로 시인과 일치한다.
- ② 시 속에 등장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일 때 가장 객관적이다.
- ④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한다.
- ⑤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2~4, 서술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배추밭 이랑을 노오란 배추꽃 이랑을
숨 가쁘게 마구 웃으며 달리는 것은
어디서 네가 나중히 부르기 때문에
배추꽃 속에 살며시 흩어 놓은 꽃가루 속에
나두야 숨어서 너를 부르고 싶기 때문에
이용악, <꽃가루 속에>

(나)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두 사람이 누우면 꼭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게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문혀 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껍데기처럼 입을 다물던 방,
게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게를 그리는 아고리와
소라 껍데기를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군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나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쉴증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 많았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게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 질 때까지 놀았다
게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껍데기에 세 든 소라처럼
나희덕, <쉴증이 보이는 방>

2. (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중년 남성의 목소리이다.
- ②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③ '네'가 불렀으나 마음만 달려갈 뿐, 행동은 변화가 없다.
- ④ 현재 '배추꽃 속에 살며시 흩어 놓은 꽃가루 속'에 있다.
- ⑤ 시적화자는 '너'에 대한 사랑을 '너'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도시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 ② 대화적인 말투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
- ③ 주제는 '나에 대한 너의 순수한 사랑'이다.
- ④ 정확한 음수율을 지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동적인 움직임과 정적인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서술형1. (나)에서 이중섭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표현을 2가지 찾아 쓰시오. (4점)

[채점기준]

- 시에서 찾아 그대로 쓸 것.
- 단어로 쓸 것.
- 각각 2점씩

4. (나)에서 이중섭 가족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와, 그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4점)

- ① 안타까움 :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 빈 조개껍데기에 세 든 소라게처럼
- ② 안타까움 :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 온 모래알이 벼석거리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 조개껍데기처럼 입을 다물던 방
- ③ 부러움 :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 귀퉁이 고방을 얻어 /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 ④ 부러움 :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 ⑤ 부러움 :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 게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 질 때까지 놀았다 / 게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서술형2. 다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점의 명칭을 쓰고, 밑줄 친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6점)

이 시는 6.25 전쟁 당시 지어진 시이다. 그러나 당시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그림에서 느껴지지 않았음을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채점기준]

- 관점은 ‘-론적 관점’의 형식으로 쓸 것.
- ‘이 부분’은 ‘첫 어절~마지막 어절’의 형식으로 쓸 것.
- 각각 3점씩.

[5~9, 서술형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줌 사이를 두고 또 푸드덕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중략>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냈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나) 나홀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게를 활금활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껴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불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 버렸다.

(다) ㉢“애! 너 배넛병 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애!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핵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 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가에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들부리에 채어 발뭇 밀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라)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월굴 이쁜 계집애 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대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탁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마)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터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바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얽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짙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김유정, <동백꽃>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황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젊은 남녀 서로 간의 비극적인 사랑을 주제로 한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최소화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1950년대 가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현대소설이다.
- ④ 집요하고 억척스러운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술형3. 작품 내에서 ㉠의 역할 두 가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6점)

[채점기준]

- 세 번째부터는 채점하지 않음.
- '첫번째 역할은~, 두 번째 역할은~.'의 형식으로 쓸 것.
- 각각 3점씩

서술형4. 윗글은 과거와 현재가 뒤바뀌어 전개되는 구성 방식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의 명칭을 쓰시오. (3점)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점순이의 심리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 : 점순이의 마음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다.
- ③ ㉢ : 문학작품에 비속어가 나타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집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④ ㉣ : 신분 차이 때문에 점순이에게 분해도 참을 수 밖에 없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⑤ ㉣ : 점순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처음과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7. 윗글의 해학적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마름의 집 딸을 대하는 행동을 단속시키는 '나'의 부모님
- ② 과장스럽고 익살이 넘치는 비속어와 토속적 어휘의 사용
- ③ 구어체의 문장과 의성어, 의태어의 잦은 사용이 만들어 내는 문체
- ④ 적극적인 점순이와 대비되는 눈치 없고 어수룩한 주인공의 성격
- ⑤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인공이 정작 독자들은

8. 윗글의 중심 소재와 의미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감자 : 나에게 대한 점순이의 애정을 보여준다.
- ② 감자 : 나와 점순이 사이의 최초의 갈등을 낳는 매개체가 된다.
- ③ 닭싸움 :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고조시킨다.
- ④ 닭싸움 : 점순에 대한 나의 관심과 애정을 반어적으로 드러낸다.
- ⑤ 닭싸움 : 갈등의 매개체이자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서술형5. 다음 특성에 적합한 소설의 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5점)

1. 등장인물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함.
2. 서술자가 소설 밖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
3.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전달해 줌.
4.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함.
5. 서술자가 소설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의 입장에서 서술함.

[채점기준]

- '1은~, 2는~' 의 형식으로 1~5 에 적합한 시점을 각각 서술할 것.
- 각각 1점씩

9. 소설에서 배경의 역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4점)

< 보 기 >

- ㄱ. 인물의 심리와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
- ㄴ.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킨다.
- ㄷ.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사실성을 높인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할아버지	오냐, 그래. 어서 오너라. 못 본 새 부쩍 자랐구나.
민수	할아버지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요새 등산을 열심히 했더니 건강해져서 그렇게 보이냐 보다.
민수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데려가 주세요.
할아버지	그래. 언제든 말하려무나. 할아버지는 대환영이란다.
민수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 제자분 중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 계세요?
할아버지	방송국? 그건 왜 묻니?
민수	진로와 관련해서 면담을 해야 하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을 면담하고 싶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민수가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가 보구나.
민수	네, 학교에서 방송반 활동을 하다 보니 관심이 생겨서요.
할아버지	그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소개해 주마.
민수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10. 윗글에 나타난 민수의 대화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5점)

< 보 기 >

- ㉠ 관계 중심적 대화
- ㉡ 정보 중심적 대화
- ㉢ 공감을 기대하는 대화
- ㉣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1~12, 서술형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11. 윗글의 시적화자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5점)

- ① 수연 : 시적화자는 간절한 남성적인 어조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
- ② 유정 : ‘나’는 ‘당신’의 무심함을 원망하며, ‘당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있어.
- ③ 민영 : 회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에 대한 주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④ 형우 : 당신이 돌아와야만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조건적인 사랑이 두드러지는군.
- ⑤ 제야 : 의인법을 사용하여, ‘나’는 기다리고 ‘당신’은 떠나는 비극적인 관계임을 노래하고 있어.

서술형6. 윗글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특징 2가지를 4음절로 각각 쓰시오. (6점)

- 각각 3점씩

12. 다음과 동일한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학생으로 적절한 것은? (5점)

이 시의 작가 한용운이 승려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인’은 중생, ‘나룻배’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인내와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① 수지 : 이 시가 지어진 시대가 일제 강점기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단순한 사랑 시가 아닐거야.
- ② 백현 : 이 시적화자 완전 집착하는 거 아니야? 나라면 이런 질척거리는 사랑은 하지 않을 텐데.
- ③ 수영 : 한용운은 승려인 동시에 독립운동가였어. 그렇다면 이 때 시적 대상은 조국인 것 같아.
- ④ 유리 : 흙밭로 짓밟혀도 물을 건너게 해주다니, 시적화자는 정말 인내심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
- ⑤ 태우 : 이 시를 읽고 나도 이런 애틋한 사랑을 받고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이 시는 정말 멋진 사랑시야.

[13~14, 서술형 7~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박목월, <나그네>

(나) ‘나그네’는 독자가 상상하여 빈 곳을 채우고, 알려주지 않는 것을 알아내야 하며, 불분명한 것에 대한 답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니 매우 어려운 작품이다. 그러나 수학 문제의 답처럼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독자는 저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나그네’를 해석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작가가 남긴 말, 시대 상황, 이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의 해석 등을 참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시의 주인공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강을 건너 나그네길에 오른 사람이다. 그의 앞에는 아득하게 들관 저쪽으로 뻗어 있는 ‘외줄기’ 길이 놓여 있다. 길이 외줄기라는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제 그 길을 내쳐 걷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는 강 저쪽의 현실, 강 저쪽의 삶과 작별하고 길을 따라 떠도는 유랑(流浪)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세상을 다 버리고 떠도는 자를 나그네라 부른다’는 시인의 말은 우리의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다) 그런데 문제는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구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풍경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인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

새까만 구름장 사이로 달은 씻은 듯 맑게 건너간다. 바람이라도 불어, 구름이 빨리 흐르면 흐를수록 날개가 돋친 듯 날아가는 달의 그 황홀한 정경. 그 달의 모습에서 나는 세상을 버린 자의 애달프게 맑은 정신을 느낀 것이다.

시인이 염두에 두었던 것이 ‘건너’가고 ‘날아가는’ 달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달의 이미지에 담긴 것은 한곳에 머물지도, 무엇에 묶이지도 않고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시인은 이런 속성을 지닌 달의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버린 자의 애달프게 맑은 정신’, ‘체념과 달관’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술 익는 마을마다’를 당시의 현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시기 한국의 농촌 현실이 매우 가난하여 술을 담글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나그네’가 현실을 왜곡했으니 잘못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술 익는 마을마다’라는 구절이 당대의 농촌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상상한 나그네의 ‘유랑의 삶’이 어떠한지 좋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잠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나그네의 여행길 피로를 풀어 주는 술이 익고 있는 마을이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 마을에는 인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나가다 들른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정성껏 대접해 줄 것이다. 시인은 자신이 상상하여 만들어 낸 그 나그네를 그런 마을에 묵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술 익는 마을마다’는 시인이 상상하여 만들어 낸 상상의 현실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이것을 두고 실제의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호웅, <상상의 세계>

13.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5점)

- ① (가)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닌 서정시이다.
- ② (가)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 ③ (나)~(라)의 글쓴이는 (가)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 ④ (나)~(라)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를 하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 ⑤ (가)~(라)는 모두 같은 글쓴이가 쓴 글이다.

1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향토성이 드러나는 시어로 공간적 배경이다.
- ② ㉡ : 나그네의 모습을 빗댄 것으로 직유법이 쓰였다.
- ③ ㉢ : 나그네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 ④ ㉣ : 나그네와 목적지 사이의 실제 거리를 의미한다.
- ⑤ ㉤ : 시 끝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준다.

서술형 7. 시 ‘나그네’를 해석할 때 참고할 사항 3가지를

(나)에서 찾아 그대로 서술하시오. (6점)

[채점기준]

- 각각 2점씩

- 네 번째 부터는 채점하지 않음

서술형 8. 윗글을 읽고 다음 ㉠, ㉡에 적합한 말을 (나)와 (다)에서 각각 찾아 **그대로** 서술하시오. (4점)

대상	해석과 근거	
나그네	해석	강 저쪽의 삶과 작별하고 떠도는 사람
	근거	시인의 말(세상을 다 버리고 떠도는 자) 시구(㉠)
구름에 달 가듯이	해석 : (㉡)	
	근거 : 시인의 말(세상을 버린 자의 애달프게 맑은 정신)	

[채점기준]
- 각각 2점씩

[15~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
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
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보
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윤동주, <별 헤는 밤>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4점)

<보 기>

ㄱ. 4연에서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ㄴ. 5연에서는 호흡이 느린 운문적 리듬을 사용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킨다.
ㄷ. 10연의 ‘그러나’는 희망적 미래에서 갈등의 현실로 시상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ㄹ. 1연에서 10년까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맑고 순수한 이미지로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다.
② ㉡ :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③ ㉢ :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행위이다.
④ ㉣ : 희망찬 화자의 감정과 대비되는 존재이다.
⑤ ㉤ :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다.

끝.

◆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이동중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